우즈베키스탄의 농축산업 현황과 정책 *

서 강 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농업 개황

우즈베키스탄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Europe and Central Asia, EC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액(GDP)과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626억 달러와 2,037달러 수준이다(World Bank).

2008~2014년 GDP는 평균 8.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성장률은 8.1%로 2013년의 8.0%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다. 2014년 농업부문 GDP는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주요곡물 및 채소 작물의 기록적 수확에 힘입어 전년대비 6.9%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2005~2014년 농업부문 연간 경제성장률은 4.5~7% 사이에서 증가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제조업(industry)과 서비스업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1%에서 2005년 26.3%, 그리고 2014년에는 17.2%로 감소 추세에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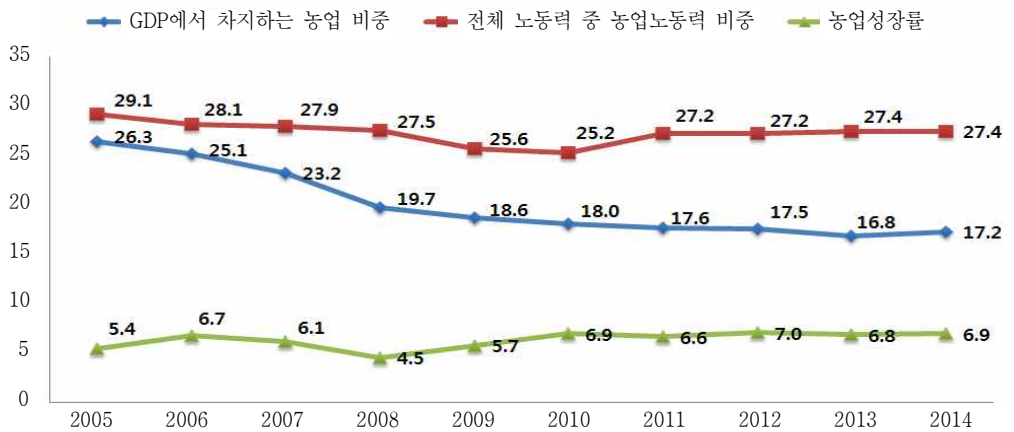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근간으로 농가인구 비중은

* (softvalue@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에 수행한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 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 방안' 과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곡물 및 축산'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60% 이상이며, 농업 인력은 전체 노동력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49%는 농촌지역(rural areas)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그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 1. 농업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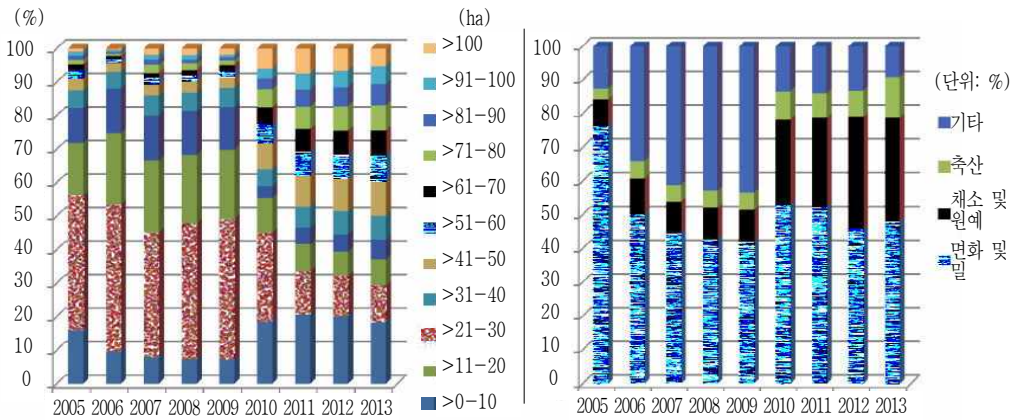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Farms as a Form of Entrepreneurship in Agriculture(2016).

2005~2014년 농업에 있어 상당한 구조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연간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총생산액 비중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동 기간에 토지분배 및 민영화(privatization) 계획이 시행되어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재배 작물이 다양해졌다.

그림 2. 농가 규모 및 분야별 특화 비율



자료: Farms as a Form of Entrepreneurship in Agriculture(2016).

국가 소유의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재구조조정과 토지소유권(land tenure) 체계의 구조적 변화는 민영 농업경영체 및 자영농 집단의 증가를 불러왔다. 민영 농업경영체 및 자영농 집단은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액 증대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농업부문 명목생산액

단위: 십억 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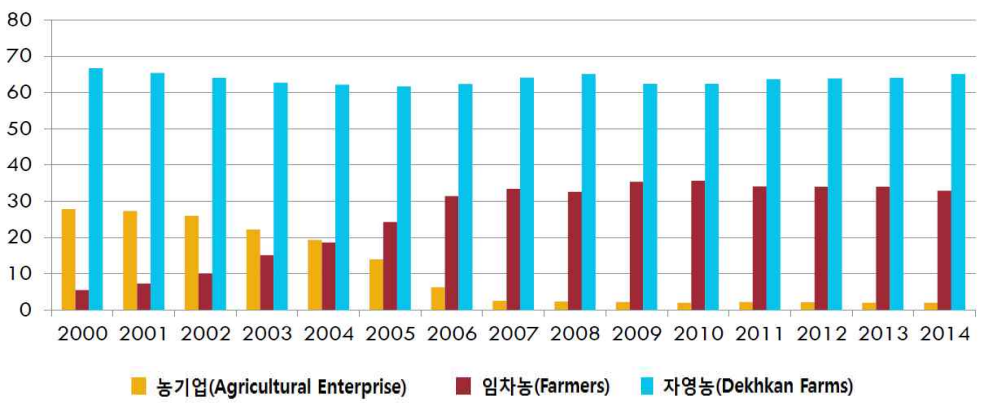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05~'14)
전체	5,978.3	11,310.7	16,774.7	24,370.3	34,201.4	36,957.2	22.4
농작물	3,323.1	6,400.1	10,023.0	14,155.3	21,211.8	21,810.6	23.3
축산물	2,655.2	4,910.6	6,751.7	10,215.0	12,989.6	15,146.6	21.3

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환율과 현장 시장 환율의 차이가 매우 큼. 시장 환율은 대략 달러($)당 약 6,000숨이며, 공식 환율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달러당 2,943.46숨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농업생산주체는 크게 임차농(Tenant Farmers), 자영농(Dekhkans Farms or Households), 농기업(Agricultural Enterprise)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임차농은 토지를 임차하여 상업농을 수행하는 독립된 경영체로 볼 수 있다. 자영농은 소규모 가족농으로 토지를 상속받아 가족 내 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림 3. 농업생산주체별 생산액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Agricultural reform in Uzbekistan(2015).

농업생산주체별 토지 소유 비중을 살펴보면 임차농(84.8%), 자영농(12.8%), 그리고 농기업(2.3%) 순으로 높다. 그 밖에 2014년 기준 생산주체별 생산액 비중은 자영농(65.1%), 임차농(32.9%), 농기업(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농축산 현황 및 문제점

2.1. 곡물 · 축산물 생산 및 교역

밀은 곡물류 중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이며, 2005~2014년 연평균 생산량 증감률도 14.0%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으로는 옥수수와 쌀이 있다.

표 2. 주요 곡물 생산량

단위: 천 톤, %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05~'14)
전체	6,401.8	6,621.6	7,404.1	7,519.5	7,807.8	8,050.5	14.0
밀	5,927.8	6,039.7	6,657.3	6,612.2	6,842.0	6,956.0	13.0
보리	109.5	141.2	173.9	141.4	135.8	139.6	14.2
쌀	165.8	112.7	244.8	325.7	340.2	365.1	24.5
옥수수	164.3	229.0	230.4	328.1	360.1	411.6	27.8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밀과 목화의 재배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작물에 집중된 경작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옥수수,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배 작물 다양화 정책의 결과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작물 전체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약 369만 4,000ha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지역별 면적은 카스카다리아(13.4%)와 지자크(10.8%)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곡물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카스카다리아로, 이 지역의 곡물생산량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곡물 생산량의 12.9%를 차지한다. 한편 재배면적에 비해 곡물생산량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는 카라칼파키스탄, 지자크 등이 있다.

표 3. 지역별 농작물 재배면적

단위: 천 ha

구분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15년 비중(%)
전체	3,647.5	3,708.4	3,628.1	3,658.6	3,678.2	3,694.2	100.0
카라칼파키스탄	238.5	265.8	254.8	233.4	229.8	251.6	6.8
안디잔	230.0	230.2	229.6	229.9	230.1	229.9	6.2
부하라	239.6	242.4	240.4	240.3	240.6	240.7	6.5
지자크	388.4	390.6	389.8	394.7	396.0	398.1	10.8
카스카다리아	477.6	493.0	478.5	494.3	499.1	493.9	13.4
나보이	102.8	105.9	99.9	102.4	102.9	102.8	2.8
나만간	220.3	224.0	221.1	222.0	223.7	224.5	6.1
사마르칸트	379.1	372.8	331.3	360.2	364.3	360.2	9.8
수르한다리아	278.1	272.3	280.4	283.0	283.2	284.3	7.7
스르다리아	242.6	235.6	227.0	230.0	232.9	232.8	6.3
타슈켄트	339.6	356.6	360.1	355.6	354.6	353.3	9.6
페르가나	289.0	290.8	290.1	289.8	289.5	289.6	7.8
허라즘	221.9	228.5	225.1	223.0	231.6	232.5	6.3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표 4. 지역별 곡물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14년 비중(%)
전체	6,401.0	6,621.6	7,404.1	7,519.5	7,807.8	8,050.5	100.0
카라칼파키스탄	201.6	203.9	289.4	278.2	223.8	217.5	2.7
안디잔	515.4	554.5	562.9	646.4	654.5	669.6	8.3
부하라	513.5	583.7	620.1	628.2	630.8	679.6	8.4
지자크	537.5	466.9	520.4	525.6	540.4	544.6	6.8
카스카다리아	855.1	889.4	983.3	912.8	1,008.6	1,035.4	12.9
나보이	206.5	230.4	247.2	253.9	262.1	266.9	3.3
나만간	434.5	451.6	484.2	500.6	516.4	544.8	6.8
사마르칸트	670.6	714.4	800.5	807.3	838.6	848.6	10.5
수르한다리아	571.6	594.5	629.6	632.4	647.6	655.0	8.1
스르다리아	379.5	383.5	452.4	517.7	545.4	579.9	7.2
타슈켄트	558.7	549.0	721.7	707.9	742.6	771.8	9.6
페르가나	656.4	719.1	758.5	771.3	777.7	790.3	9.8
허라즘	300.9	280.7	333.9	337.2	419.3	445.7	5.5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축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오늘날에는 연간 농업생산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축산물이 자영농(소규모 가족농)이 관리하는 평균 0.15ha의 방목지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470만 개의 자영농이 전체 소의 94%, 염소와 양의 84%를 사육하고, 육류의 95%와 우유의 96%를 생산하는 등 축산물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소(cattle)의 전체 사육마릿수는 1,099만 5,000두이며, 이 중 육우가 약 37%를 차지한다. 농가 유형별 사육두수는 자영농이 대부분으로, 평균적으로 자영농이 사육하는 가축은 전체 가축 마릿수의 80% 이상이다.

표 5. 2015년 생산주체별 축종에 따른 사육 현황

단위: 천 두

구분	농기업		임차농		자영농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소(cattle)	121.9	1.1	545.2	5.0	10,328.1	93.9	10,995.2
육우(cows)	35.2	0.9	187.2	4.6	3,861.9	94.6	4,084.3
양, 염소	1,642.4	8.9	1,336.6	7.2	15,459.9	83.8	18,438.9
돼지	10.4	11.8	8.2	9.3	69.2	78.8	87.8
가금류	13,982.5	24.8	6,670.8	11.9	35,623.0	63.3	56,276.3
말	12.3	5.8	20.7	9.7	180.4	84.5	213.4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축산물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쇠고기로 2014년 생산량은 142만 7,000톤이며 전체의 74.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양고기로 동년 기준 36만 4,000톤(19.1%)이다.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비롯한 나머지 축산물 생산량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2014년 지역별 축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육류 및 우유의 경우 카스카다리아,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등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다. 달걀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순으로 생산량이 많으며,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4%이다<표 6 참조>.

닭고기 및 달걀 또한 자영농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지배적인 수준은 아니다. 2014년 기준 생산주체별 닭고기 및 달걀 생산량은 자영농, 농기업, 임차농 순이다<표 7 참조>.

표 6. 2014년 지역별 축산물 생산량

구분	육류(천 톤)		우유(천 톤)		달걀(백만 개)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906.3	100.0	8,431.6	100.0	4,950.0	100.0
카라칼파키스탄	82.7	4.3	296.5	3.5	185.9	3.8
안디잔	119.9	6.3	763.2	9.1	375.1	7.6
부하라	182.7	9.6	724.0	8.6	286.4	5.8
지자크	162.8	8.5	468.8	5.6	172.0	3.5
카스카다리아	233.2	12.2	887.1	10.5	317.4	6.4
나보이	125.4	6.6	359.9	4.3	219.8	4.4
나만간	106.5	5.6	536.3	6.4	276.6	5.6
사마르칸트	230.0	12.1	1,064.6	12.6	939.5	19.0
수르한다리아	146.4	7.7	706.4	8.4	239.5	4.8
스르다리아	52.8	2.8	270.5	3.2	107.3	2.2
타슈켄트	212.5	11.1	735.7	8.7	1,231.7	24.9
페르가나	130.5	6.8	802.5	9.5	267.8	5.4
허라즘	120.9	6.3	816.1	9.7	331.0	6.7

주: 축산물별 전체 생산량은 농기업, 임차농, 자영농 각 생산주체가 생산한 양의 합계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표 7. 생산주체별 닭고기 및 달걀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14년 비중(%)
닭고기 (천 톤)	전체	27.2	35.4	42.9	60.5	66.9	79.4	100.0
	농기업	7.5	7.8	9.9	16.1	19.7	23.7	29.8
	임차농	0.5	0.7	1.3	1.8	2.4	5.7	7.2
	자영농	19.2	26.9	31.7	42.6	44.8	50.0	63.0
달걀 (백만 개)	전체	1,996.7	2,431.5	3,061.2	3,873.7	4,388.1	4,950.0	100.0
	농기업	729.3	773.4	997.6	1,295.4	1,486.9	1,680.1	33.9
	임차농	71.6	157.3	288.1	464.6	501.3	543.0	11.0
	자영농	1,165.8	1,500.8	1,775.5	2,113.7	2,399.9	2,726.9	55.1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연도별 주요 곡물 및 축산물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출량에 비해 수입량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곡물 및 축산물 중 연간 수입물량이 100톤 이상인 품목은 총 12개이며, 이 중 밀 전체 수입량은 173만 6,000톤으로 다른 품목에 비

해 매우 많다.[1)]

2012년 대비 2013년에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으로는 닭고기(48.1%), 두류(25.0%)가 있으며, 급감한 품목으로는 귀리(-39.1%), 보리(-33.5%)가 있다<표 8 참조>.

표 8. 연도별 주요 곡물 및 축산물 수입량

단위: 백 톤

구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대비 증감률
밀	4,739	10,219	11,290	13,160	17,304	19,750	17,360	−12.1
쌀	4	82	157	35	15	2	2	−
보리	307	565	483	255	950	796	529	−33.5
옥수수	0	1	1	1	−	−	−	−
호밀	1	7	3	3	8	4	3	−25.0
귀리	2	8	9	11	17	23	14	−39.1
감자	9	32	32	120	96	158	184	16.5
두류	108	80	47	51	39	77	102	32.5
쇠고기	18	2	2	3	5	4	5	25.0
돼지고기	77	72	55	54	66	70	74	5.7
닭고기	69	40	38	54	122	185	274	48.1
우유 및 유제품	96	49	69	31	92	112	105	−6.3

자료: FAO STAT.

표 9. 연도별 주요 곡물 및 축산물 수출량

단위: 백 톤

구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대비 증감률
밀	656	132	746	1,373	1,376	84	1,332	1,485.7
두류	16	29	2	3	4	10	6	−41.0
양모	5	2	2	2	1	1	2	−
우유 및 유제품	−	1	1	1	3	3	3	−

자료: FAO STAT.

1) 밀은 앞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곡물류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긴 하나, 우즈베키스탄이 세계에서 밀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는 자국생산 밀의 약 50%만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임. 나머지 50%가량의 밀은 사료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며, 민간 제빵사들은 카자흐스탄산 밀가루를 선호함.

반면 수출물량이 100톤 이상인 품목은 밀, 두류, 양모, 우유에 국한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밀, 그리고 포도, 토마토, 복숭아 등의 과일류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로서, 곡물 및 축산물 범위 내에서는 밀이 수출물량의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수출물량을 살펴보면, 밀은 2013년 13만 3,200톤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485.7% 증가하였다.

밀을 제외한 다른 곡물류는 수출입 물량이 거의 없다. 쌀, 옥수수, 보리는 수출하지 않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 물량 또한 매우 적은 편이다. 생산되는 쌀, 옥수수, 보리는 대부분 국내에서 자급되며, 적은 물량만이 추가로 수입되고 있다<표 9 참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농축산물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 중 농산물이 전체 교역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기준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 및 수출하는 농축산물 총 금액은 각각 413만 4,000달러, 335만 5,000달러이다.

그러나 곡물류는 거의 교역하고 있지 않다. 2013년 보리 위주로 수출한 바 있으나, 이후 2014~2015년 전체 곡물류 교역액은 167달러에 불과하다. 축산물의 경우 곡물류에 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발하긴 하나, 동시에 변동성도 큰 편이다.

표 10. 한국-우즈베키스탄 농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년 비중(%)
수입	농산물	4,484	3,578	1,725	2,377	3,730	3,764	91.0
	축산물	63	43	1,583	1,362	283	370	9.0
	총계	4,547	3,621	3,308	3,739	4,013	4,134	100.0
수출	농산물	4,399	5,128	5,780	3,888	3,242	3314	98.8
	축산물	0	44	19	37	45	41	1.2
	총계	4,399	5,172	5,799	3,925	3,287	3,355	100.0

자료: 농산물수출입정보(KATI).

2.2. 축산가공식품 시장 현황

2.2.1. 치즈 시장

2016년 치즈 판매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환율변동(currency fluctuation)으로 인하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 자연치즈의 매출액은 약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공치즈에 비해 확대된 유통경로 및 제품다양성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 치즈 시장 규모

단위: 톤, 십억 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5/16 변화율
물량	가공치즈	1,134.9	1,121.1	1,393.4	1,469.6	1,436.5	1,390.0	−3.2
	자연치즈	5,572.2	6,021.3	6,916.6	7,293.6	7,200.9	7,000.0	−2.8
	합계	6,707.1	7,242.4	8,310.0	8,763.2	8,637.4	8,390.0	−2.9
금액	가공치즈	28.7	33.3	40.1	48.2	55.6	63.7	14.6
	자연치즈	105.3	123.9	155.7	193.8	227.7	265.3	16.5
	합계	134.0	157.2	195.8	242.0	283.3	329.0	16.1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표 12. 업체별 치즈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Hochland Russland OOO	16.7	14.4	13.7	13.1	13.0
Valio ZAO	16.4	14.2	13.6	12.9	12.4
Bad Bibra	16.2	13.2	12.3	11.3	10.7
Bio-Sut QK MChJ	4.1	4.7	8.6	9.3	10.4
Yantar AOZT	12.6	11.7	10.3	9.3	8.4
Parmolad Prod OOO	5.7	4.9	5.3	5.2	5.2
Sulsherjahon XK	–	–	3.4	3.7	3.9
Jasurbek Firdavs MChJ	–	–	2.8	3.2	3.6
Fatih Kral Mob MChJ	–	–	2.1	3.0	3.2
Lactalis Vostok ZAO	–	–	1.9	2.7	3.0
Yasar Holding AS	–	1.7	1.8	2.1	2.3
Tillo Domor ChP	–	–	–	1.6	2.0
Sobirov ShB XK	1.8	2.3	2.2	2.0	1.9
Yörsan Gida Mamülleri San ve Tic AS	–	1.3	1.2	1.1	0.9
Tohtaniyoz Ota FH	2.4	3.5	–	–	–
Wimm-Bill-Dann-Tashkent IP OOO	–	–	–	–	–
기타	24.1	28.1	20.7	19.4	1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2015~2016년 제품 한 단위당 치즈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달러 대비 우즈베키스탄 숨의 가치가 크게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치즈의 상당 물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치즈가격은 환율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영브랜드(National Brand Owner, NBO)회사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Hochland Russland OOO, Valio ZAO, Bad Bibra, Bio-Sut QK MChJ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표 12 참조>.

2016년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2.6%로 가장 크며,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점유율은 18.0%로 그 뒤를 잇는다. 이들 업체의 성공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을 들 수 있다. 나머지 10%는 슈퍼마켓과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유통채널별 치즈 판매 비중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점 중심 소매업(Store-Based Retaili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소매업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식 식료품 소매업체	2.3	2.3	2.3	2.9	3.0	3.1
슈퍼마켓	2.3	2.3	2.3	2.9	3.0	3.1
전통 식료품 소매업체	97.7	97.7	97.6	97.1	97.0	96.9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	-	-	-	3.2	4.4	6.3
영세 개인 식료품 소매업체	81.8	82.7	82.6	76.2	74.7	72.6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15.9	14.9	15.0	17.7	17.9	18.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2.2.2. 음용유 시장

우유는 정부로부터 특정 지원(보조금 등)을 받는 품목은 아니나, 우즈베키스탄 법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우유 등을 무상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1~2016년 재래식으로 생산된 비포장(unpackaged) 음용유 제품(milk product)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포장(packaged) 방식의 음용유 제품 수요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비포장 방식의 음용유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다수의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포장 제품보다 지역 주민이 판매하는 신선한 비포장 우유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비포장 우유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다수 소비자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제품이다.

표 14. 음용유 시장 규모

단위: 톤, 십억 숨,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5/16 변화율
물량	향료첨가우유	–	–	630.0	645.8	676.6	719.5	6.3
	시유(흰우유)	104,576.6	112,217.7	123,896.1	128,103.8	129,738.6	131,676.0	1.5
	– 신선유	44,358.4	57,465.1	70,088.7	72,134.5	72,348.0	72,539.1	0.3
	– 상온보관우유	60,218.2	54,752.6	53,807.4	55,969.3	57,390.6	59,136.9	3.0
	합계	104,576.6	112,217.7	124,526.1	128,749.6	130,415.2	132,395.5	1.5
금액	향료첨가우유	–	–	5.0	6.2	7.4	8.4	13.7
	시유(흰우유)	206.6	276.8	364.0	427.5	490.1	544.9	11.2
	– 신선유	81.1	120.8	168.6	196.0	227.5	256.0	12.5
	– 상온보관우유	125.5	156.0	195.4	231.5	262.6	288.9	10.0
	합계	206.6	276.8	368.9	433.7	497.4	553.3	11.2

주 1) 향료첨가우유에 과일즙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제품 실적은 파악되지 않음.
2) 시유 판매량의 경우 염소에서 짠 우유는 제외되었으며, 분유(powder milk)나 두유와 같은 대체품도 판매실적도 파악되지 않음.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음용유 제품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편인데, 이는 선도하는 브랜드의 상당수가 자국 회사이기 때문이다. 2012~2016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Nestlé Uzbekistan LLC'이나 그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표 15 참조>.

2016년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의 시장점유율은 83.3%이다. 이 외에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가 9.3%,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가 4.0%, 그리고 '슈퍼마켓'이 3.4%를 차지하고 있다<표 16 참조>.

표 15. 업체별 음용유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Nestlé Uzbekistan LLC	30.9	27.8	27.4	26.3	24.7
Poytaht Bottlers MChJ	9.2	12.8	14.2	15.2	16.8
Tano FX	5.9	10.8	11.3	12.6	13.7
Bio-Sut QK MChJ	6.9	6.4	6.5	7.4	8.4
Bustonlik Sut MChJ	12.1	10.2	10.1	9.4	8.1
Bishkeksut OAO	7.5	4.9	3.9	3.7	3.6
Unimilk Kompania OAO	-	1.5	2.5	2.5	2.2
InterSok SP	-	-	0.2	0.2	0.2
Wimm-Bill-Dann Produkty Pitania OAO	-	-	0.3	0.2	0.2
기타	27.4	25.6	23.6	22.5	2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2) 편의점, 할인매장(discounters), 대형슈퍼마켓(Hypermarkets), 비식료품 전문업체 등의 유통 실적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표 16. 유통채널별 음용유 판매 비중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점 중심 소매업(Store-Based Retaili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소매업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식 식료품 소매업체	2.5	2.5	2.5	3.1	3.3	3.4
슈퍼마켓	2.5	2.5	2.5	3.1	3.3	3.4
전통 식료품 소매업체	97.5	97.4	97.5	96.9	96.7	96.6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	-	-	1.4	2.8	3.1	4.0
영세 개인 식료품 소매업체	89.9	90.0	88.3	84.8	84.0	83.3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7.6	7.4	7.7	9.3	9.6	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2.2.3. 유산균음료 시장

전년대비 2016년 요구르트 및 젖산발효유 제품의 매출액은 12.1% 증가하여 15억 숨에 달하였으며, 이 중 요구르트가 전체 유산균음료 시장의 37%, 젖산발효유가 63%를 차지하였다.

젖산발효유(sour milk products) 판매 실적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랜드 입지 강화와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포장의 재래식 유산균 음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표 17. 유산균음료 시장 규모

단위: 천 톤, 십억 숨,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5/16 변화율
물량	젖산발효유	144.3	154.6	167.7	176.5	179.7	182.1	1.3
	요구르트	17.6	19.0	20.4	21.5	21.8	22.0	0.7
	합계	161.9	173.6	188.1	197	201.5	204.1	1.3
금액	젖산발효유	496.1	549.7	612.8	717.8	824.5	925.8	12.3
	요구르트	202.1	266.8	333.2	405.7	486.1	543.6	11.8
	합계	698.2	816.5	945.9	1123.5	1310.6	1469.4	12.1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표 18. 업체별 유산균음료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Bustonlik Sut MChJ	48.7	42.8	39.8	36.7	34.0
Bio-Sut QK MChJ	8.1	8.4	9.1	10.2	12.2
Tano FX	0.7	0.8	4.7	5.6	6.2
Uzbek-Sut OOO	-	2.5	3.1	3.7	4.2
Danone Industriya OOO	3.7	3.8	4.2	4.2	4.0
Campina OOO	3.6	3.7	4.1	3.9	3.6
Ehrmann OOO	3.4	3.5	3.5	3.6	3.5
Wimm-Bill-Dann Produkty Pitania OAO	3.7	3.8	3.9	3.7	3.3
Shokarimhoji Sut Mahsulotlari FX	-	2.4	2.5	2.8	3.3
Vodiy QK	2.4	2.4	2.2	2.2	2.3
Sharipov XT	0.7	0.9	0.9	1.0	1.1
Musaev MS XK	-	-	0.6	0.8	0.9
Siyob Shavkat orzu FX	-	-	0.5	0.8	0.9
Saltanat Muzlatilgan Mahsulotlari MChJ	-	-	0.5	0.6	0.7
Wimm-Bill-Dann-Tashkent IP OOO	-	-	-	-	-
기타	25.2	25.0	20.3	20.3	1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우즈베키스탄 유산균음료 시장점유율은 Bustonlik Sut MChJ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Bio-Sut QK MChJ가 12.2%로 그 뒤를 잇는다. 이들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50%에 달한다<표 18 참조>.

요구르트 및 젖산발효유 제품 또한 주로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2016년 유통 비중은 90%에 달하였다.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의 경우 이용하기 편한 곳에 주로 자리 잡고 있기에 판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등은 7%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가정에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변질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표 19. 유통채널별 유산균음료 판매 비중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점 중심 소매업(Store-Based Retaili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소매업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식 식료품 소매업체	2.7	2.7	2.7	3.4	3.6	3.8
슈퍼마켓	2.7	2.7	2.7	3.4	3.6	3.8
전통 식료품 소매업체	97.3	97.3	97.3	96.6	96.4	96.2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	–	–	–	–	–	–
영세 개인 식료품 소매업체	92.8	92.9	92.7	90.4	89.9	89.6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4.6	4.4	4.7	6.3	6.5	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2) 편의점, 할인매장(discounters), 대형슈퍼마켓(Hypermarkets), 비식료품 전문업체 등의 유통 실적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2.3. 농축산업 시장 당면 과제

첫째, 우즈베키스탄 축산농가의 절반 이상은 원활한 사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료 공급이 부족한 주된 원인은 사료작물이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과 농기계의 노후화, 관개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축산물 증산정책을 추진하여 옥수수, 대두 등 사료 원료곡물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이 외에도 고품질 사료의 공급이 부족하며, 배합사료 등 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점도 문제이다.

둘째, 토지를 전대(轉貸, sub-leasing)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농촌지역의 유능한 농업인이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목장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산적인 소 사육농가도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가 농가에게 면화 및 밀 생산 용도로 배분한 땅은 소 방목을 비롯해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은 축산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정부의 토지 보유권(land tenure) 및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s)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양축농가들은 경영상 또는 사육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영농자금을 빌리기 어렵다. 이는 공식 농지시장이 충분히 확대하지 않아, 농촌지역 농업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금을 대출받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 외에도 대부분의 농업 생산 및 가공 시설은 구소련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낙후되어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와 육류 및 유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 교체가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 배합사료(feed compounds), 그리고 혈통 있는 가축을 구매하기 어렵다.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충분히 이용 가능한 여건이 아니며, 투입재(축산기자재 등) 및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경영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농 · 축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3.1. 농축산물 가공산업 중점 육성

우즈베키스탄은 '2012~2015년 식품산업 발전확충 전략'을 기반으로 2015년까지 식료품 및 16종의 반제품 생산량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기업 현대화를 위한 7,480만 달러 규모의 33개 투자프로그램과, 유제품 가공 관련 기업 44개, 육류가공 기업 90개, 기타 식품관련 기업 78개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산물 가공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2015~2019년 중기계획의 경우 재무부, 농업수자원부, 거시경제전망연구소(IFMR)가 공동으로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농산물 가공 및 수출, 농업의 기계화, 산업시설 증설, 축산 발전 등 각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분야 구조적 개혁, 농업에 첨단기술 도입, 농업기계설비교체, 농산물 가공 및

완제품 생산, 교배연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2015~2019년 농업발전 프로그램에서도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3.2. 육류생산 지원

정부는 또한 2015~2019년 육류생산의 구조적 개선 및 현대화,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육류부문 총 투자액은 1,57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 중 650만 달러는 4개 지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나머지 920만 달러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6개 생산업체 Masterdelikatesov, Pozmetov ZM, Ibragimov XN, Agro Bravo, Bakht, Sieb Shavkat Orzu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확장에 사용될 것이다.

2016년까지 정부는 312개에 달하는 육류 및 유가공 기업 및 기타 식품가공기업 을 재건축하여, 육류와 유제품 생산량을 각각 1만 6,500톤, 4만 5,700톤씩 늘리고자 한다. 그 밖에, 정부는 2019년까지 44개의 우유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90개의 육류가공 공장을 세우거나 보수할 계획이다.

3.3. 관개기술 지원

개간 및 관개 기반여건 개선을 위해 2013~2017년 관개농지 개선 및 적절한 용수 이용에 관한 '주단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1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2014년 1,771km에 이르는 수계망(drainage network)이 새롭게 구축되거나 재건되었고, 2만 4,700km에 달하는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정책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는 절수(water-saving) 관개기술 발달이다. 최근 점적관수(drip irrigation) 기술적용 면적은 연간 5ha씩 증가하고 있다. 2013~2017년 토지소유주 및 농업인들은 총 25ha 점적관수에 한하여, 주단위 예산을 통해 장기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점적관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조합의 경우, 영농활동에 있어 토지임차료 및 기타 세제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3.4. 세제 혜택

농가 및 농기업은 과세우대조치(preferential tax treatment)를 받고 있으며, 모든 농가는 개인세(individual taxes)보다 적은 단일의 토지세(land tax)를 납부한다. 또한, 농가에

2) 최지현 외. 2015. pp. 72~73.

서는 연료, 종자, 비료 등과 같은 투입재를 살 경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투입재는 소비세나 다른 세금으로부터 제외되며, 소득(revenues)에는 감액된 수익세(profit tax)가 적용된다.

이는 농업과 특히 농산물 가공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면세(또는 감세) 기간, 자본재 수입품 면세, 그리고 토지 등의 몰수(expropriation)보호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광업, 농업, 그리고 기계 및 제조업 등의 다양한 전략적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저널리즘(journalism)과 같은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지현, 박미성, 박한울. 2015.「TCR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 사업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2009.「우즈베키스탄 농업투자환경 조사 보고서」.

A.I.Abruev, Sh. B. Babakholov, D.A.Mirzaev. 2015. “The Role of Economic Reforms in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Sector in Uzbekistan.” Americ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3(6): 408-411.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Drinking Milk Products In Uzbekistan」.

_____. 2016.「Cheese In Uzbekistan」.

_____. 2016.「Yoghurt and Sour Milk In Uzbekistan」.

G. Ibragimov, U. Yakubov. 2015. “Agricultural Development in Uzbekistan” Research Articles, vol. 1.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AMO(Leibniz Institut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2016. “Farms as a Form of Entrepreneurship in Agriculture.”

IAMO(Leibniz Institut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2015. “Agricultural reform in Uzbekistan.”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5. “2014/15 Knowledge Sharing Program with Uzbekistan.”

USDA. 2014. “2014 Uzbekistan Exporter Guide.”

World Bank Group. 2015. “Uzbekistan Partnership Country Program Snapshot.”